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333

Updated January 19, 2021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7
- BC Sales Report	
Tankers	12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7
Key Indicators	20
STL News & Information	22
Contact Information	24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ISSUE & TREND

1. 도전 직면한 조선업계, '미래선박' 경쟁 치열

전세계 선박 수주시장이 IT 기술 발전과 환경규제 강화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제 조선시장은 과거 선박 대형화 추세에서 탈피해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과 스마트선박 기술 주도권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조선시장을 선도하는 대형업체들의 신년사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불확실한 위기 속에서는 기술만이 미래를 여는 유일한 열쇠다"고 밝히고 "기술의 진보는 단순한 연구개발이 아닌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 기술력 확보를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올해부터 삼성중공업을 책임지게 된 정진택 신임 사장도 "성장 동력 확보는 우리의 미래다. 친환경, 신기술, 신제품 연구 개발에 더욱 집중해 시장을 선점하자"며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최근 지구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해상 환경규제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UN에서 해양규제 권한을 위임 받아 오염물질 저감, 선박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 규제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특히 선박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2008년 대비 30% 이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30년에는 40%, 2050년에는 70% 수준까지 단계적인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해상 환경규제를 강화하자 국내 조선업계도 기존 화석연료 대신 암모니아, 전기 등 친환경에너지를 주축으로 하는 선박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국내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영국 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암모니아추진선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타 조선사들도 최근까지 암모니아추진선 인증을 동반 획득하며 오는 2024~2025년 암모니아추진선 상용화를 목표로 수립했다.

암모니아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대체연료다. 암모니아추진선을 상용화하면 2030년 국제해사기구(IMO) 온실가스 감축규제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까지 저감해야 하는 2050년 규제까지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향후 선박연료로 암모니아, 수소 등의 사용비중이 점차 확대돼 2060년에는 신조선의 6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 . ISSUE & TREND

암모니아추진선과 함께 전기추진선 역시 또 다른 미래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 예측 전문기관인 아이디테크엑스(IDTECHEX)에 따르면 전기추진선박 관련 시장규모는 2018 년 8 억달러에서 2029 년 124 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미 지난 2019 년 3 월 노르웨이 선급인 DNV-GL 로부터 세계 최초로 연료전지 연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선박 기본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말 고체산화물기반 연료전지의 선박 적용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등 차세대 전기추진시스템 개발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UIPA)과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전기추진 선박 1 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선박용 전기추진시스템은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수주를 통해 전기추진선 국산화도 가시화한 상태다.

삼성중공업도 지난해 6 월 세계적인 연료전지 생산기업인 미국 블룸에너지(BLOOM ENERGY)와 업무협약을 맺고 선박용 연료전지 공동개발에 나서고 있다. 오는 2022 년까지 LNG 선, 셔틀탱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 핵심기술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조선사들의 경쟁은 스마트선박 개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세계 선주들은 선박 대형화 경쟁을 멈추고 IT 기술을 접목한 자율운항 선박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스마트선박은 선박운항정보와 선박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로 최적항로를 계획해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자율운항 기능이 핵심이다.

현재 스마트선박 개발 선두주자는 유럽 조선사들이다. 2017 년 영국 롤스로이스의 예인선 원격운항, 2020 년 노르웨이 콩스버그의 자율운항선박 건조 등 스마트선박 개발과 실증작업 등을 주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마트선박에 대한 실증을 완료하면 모든 선박들을 대상으로 교체수요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도 대형 조선 3 사 주도 하에 스마트선박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독자모델 엔진인 힘센엔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선박운전 최적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시스템에 적용한 인공지능은 선박 엔진의 빅데이터와 실시간 정보를 종합해 분석한 후 최적연비 방안을 찾아 운항선박에 명령을 내리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통해 기존보다 연간 연료비를 1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 . ISSUE & TREND

삼성중공업은 2019년 6월부터 DNV GL과 원격 지원, 승선인력 절감을 위한 스마트선박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승선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0월 조선업계 최초로 독자기술로 개발한 원격자율운항 시스템인 SAS(SAMSUNG AUTONOMOUS SHIP)를 실제 운항 중인 예인 선박 'SAMSUNG T-8'호에 탑재해 실증에 성공했다. SAS는 선박에 장착한 항해통신장비의 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주변 선박과 장애물을 인지하고 최적 회피경로를 찾아내며 추진·조향장치 자동 제어로 선박 스스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스마트선박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마트선박 솔루션 'DS4(DSME SMART SHIP PLATFORM)'를 기반으로 운항 환경 측정 강화, 유지보수, 안전운항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궁극적으로는 자율운항이 가능하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세계 조선 수주시장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과 스마트다. 과거에는 선주들이 선박 대형화에 무게를 실었다면 이제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율운항을 할 수 있는 선박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선사들은 이러한 선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선박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경쟁력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2. KSS 해운, 태국 에너지 기업과 563억 규모 LPG 운송계약 체결

KSS 해운은 태국 국영 에너지 기업 PTT PUBLIC COMPANY LIMITED와 신규 LPG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계약금액은 총 563억원으로 지난 2019년 매출액 대비 24.36% 규모이다. 이 계약은 전일 공시한 9만 1000CBM급 친환경 LPG 이중연료 추진 VLGC 신조 1척의 운송계약이다. 동 계약에 투입되는 VLGC 신조는 국내 최초로 LPG와 중·경질유를 모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추진엔진을 장착해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규제에 대비한 최신형 선박이다.

I . ISSUE & TREND

KSS 해운은 스페인 VILMA OIL 과 유럽계 에너지 기업인 BGN 그룹에 이어, 태국 국영 에너지 기업인 PTT PUBLIC COMPANY LIMITED 와 신규 운송계약까지 연이어 체결하며 화주 다변화를 통한 전 세계 LPG 운송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됐다.

현재 VLGC 시장은 코로나 19 여파에도 친환경 에너지인 LPG 물동량의 지속적인 상승과 선복량 부족으로 인해 운임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고운임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추가적인 신조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도 밝다. KSS 해운은 올해 3 분기까지 총 5 척의 초대형가스운반선을 인도받을 예정이다.

KSS 해운 측은 "이에 따라 총 16 척의 중·대형 가스선대를 구축하게 되며 시의적절한 신조선 인수에 따른 선단의 현대화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세계 5 위권 VLGC 선사로 발돋움하며 영업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3. 해수부, 2025 년까지 항만 초미세먼지 60% 저감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5 년간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제 1 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19 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항만·선박 미세먼지 종합대책,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등 항만·선박 분야의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또 2019 년 4 월에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배출규제해역 등 항만 대기질 개선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5 년마다 중장기적으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것이다.

'제 1 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은 '맑은 공기, 숨 쉬는 항만'이라는 비전 아래 2025 년까지 항만 배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60% 감축(2017 년 대비) 하는 것을 목표로 4 대 전략 아래 15 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선박을 포함한 항만 하역장비, 항만 출입 화물자동차 등 항만 내

I . ISSUE & TREND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에 맞춰 내항선 저유황유 의무화,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을 추진한다. 또 선박의 연료소모량을 줄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인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참여선사 공개, 신청·증빙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2025년까지 프로그램 참여율 9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선박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의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친환경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해양수산부 소속 관공선의 약 80%를 친환경화한다.

아울러 차세대 친환경선박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전기추진선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증도 병행한다.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친환경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YT)'의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항만별 하역장비 운영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항만 맞춤형 하역장비 친환경화 방안을 마련해 2025년까지 항만 내 주요 하역장비의 90% 이상을 친환경으로 전환한다. 또 항만출입관리시스템 및 환경부의 5등급 차량정보 연계를 통해 항만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적용한다.

LNG 추진선박 확대 등 LNG 벙커링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부산, 울산 등 주요항만에 LNG 벙커링 터미널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13개 주요 항만에 248선석의 고압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항만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힘쓸 방침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항만에서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첫 단추인 만큼 목표를 원만히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 . ISSUE & TREND

4. 원자재 슈퍼사이클 온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리플레이션(인플레이션 회복)과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원유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 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와 북해 브렌트유 선물의 미결제약정이 5 월 이후 최대로 늘었다. 미결제약정이란 청산되지 않고 보유된 선물계약을 의미하는데, 이는 해당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이 유지되며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가는 거의 11 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추가 상승 기대가 높다. 골드만삭스부터 JP 모간체이스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글로벌 은행들은 올해 원유를 낙관하고 있고 일부 대형 헤지펀드들은 원자재의 슈퍼사이클 진입을 예상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마이너스 유가라는 초현실적 일이 벌어졌던 지난해 4 월과 비교해 확실한 '턴어라운드'(방향 전환)이라는 평가다. BNP 파리바의 한 원유전략가는 블룸버그에 "거시경제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원자재를 투자처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JP 모간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헤지하기 위한 투자처로 원자재를 선호한다고 밝혔다.뱅크오브아메리카는 리플레이션 압박이 이미 유가를 끌어 올렸다고 평가했다.

달러 약세로 원자재의 슈퍼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는 논의에 불을 지폈다. 올해 글로벌 경제에서 확실한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원유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렌트유와 WTI 선물의 미결제약정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2018 년 4080 억달러의 1/3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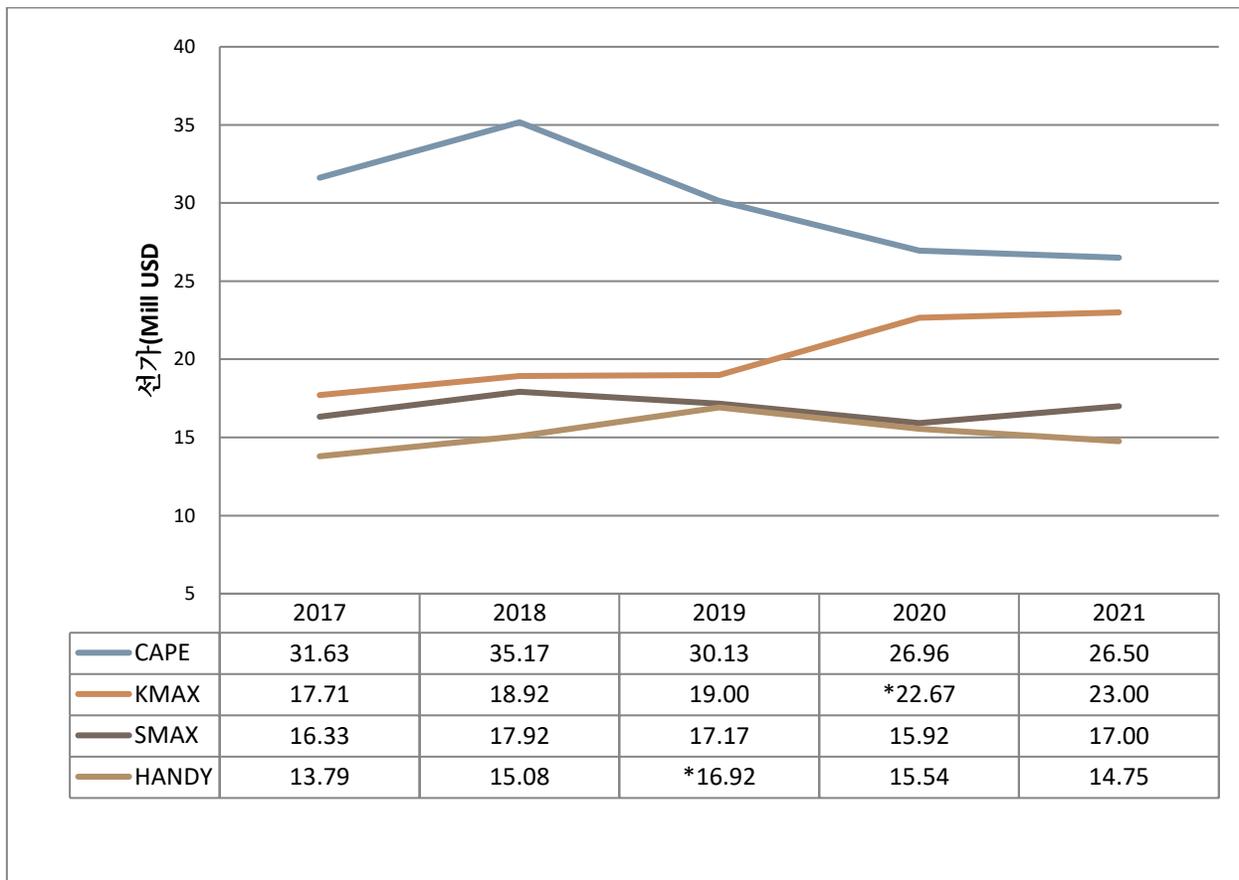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7	2018	2019	2020	2021
Capesize 180K	31.63	35.17	30.13	26.96	26.50
	31.43%	11.20%	-14.34%	-10.51%	-1.70%
Kamsarmax 82K <small>*'19년까지는 76K 기준</small>	17.71	18.92	19.00	*22.67	23.00
	29.57%	6.82%	0.42%	19.30%	1.47%
Supramax 58K	16.33	17.92	17.17	15.92	17.00
	25.44%	9.69%	-4.20%	-7.28%	6.81%
Handysize 37K <small>*'18년까지는 32K 기준</small>	13.79	15.08	*16.92	15.54	14.75
	38.78%	9.37%	12.18%	-8.13%	-5.09%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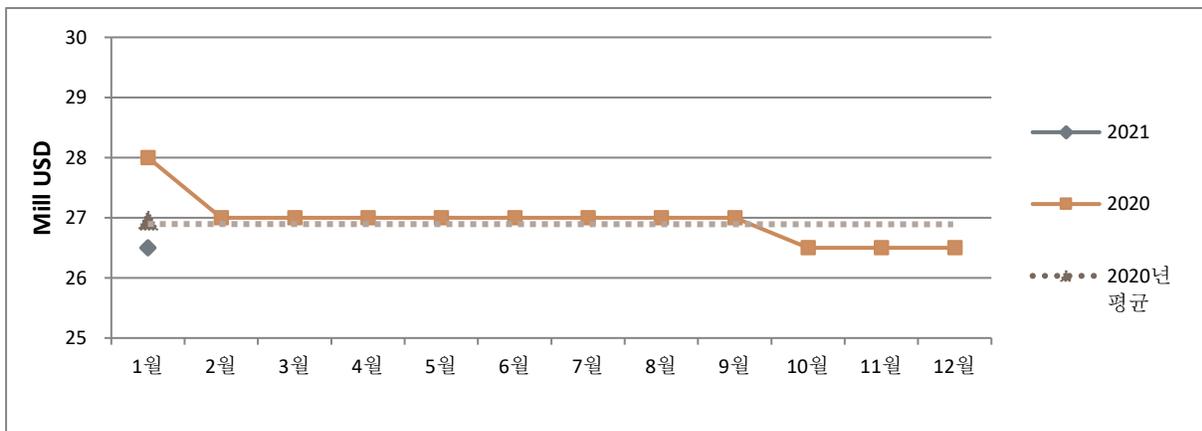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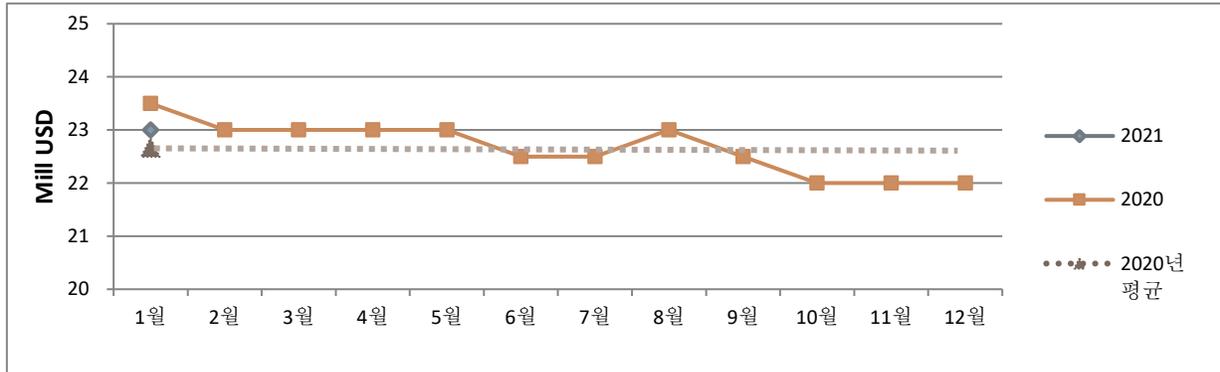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21	CAPE 180K	선가	26.50						26.5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5.4%						-1.7%
	KMAX 82K	선가	23.00						23.00
		전월대비	4.5%						-
		전년대비	-2.1%						1.5%
	SMAX 58K	선가	17.00						17.00
		전월대비	9.7%						-
		전년대비	0.0%						6.8%
	HNDY 37K	선가	14.75						14.75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13.2%						-5.1%
2020	CAPE	28.00	27.00	27.00	27.00	27.00	27.00	26.96	
	KMAX	23.50	23.00	23.00	23.00	23.00	22.50	22.67	
	SMAX	17.00	16.50	16.50	16.50	16.00	15.50	15.92	
	HANDY (37k)	17.00	17.00	17.00	17.00	15.50	15.00	15.54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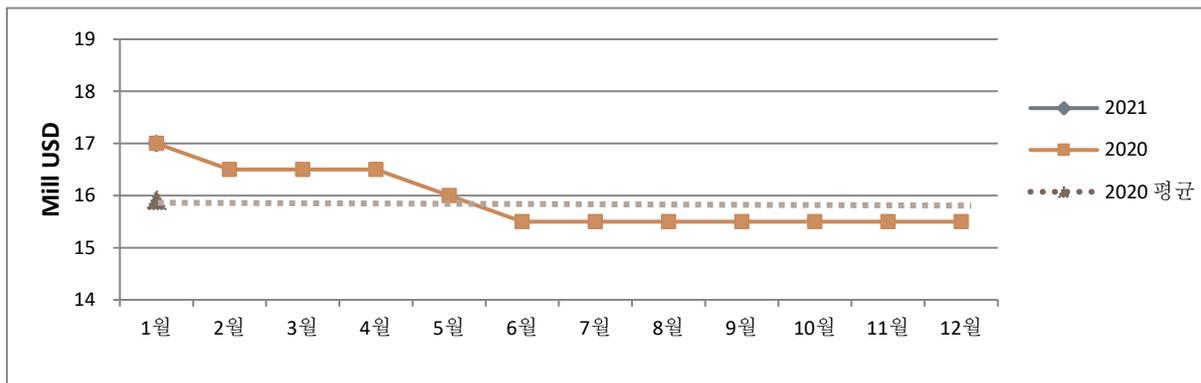


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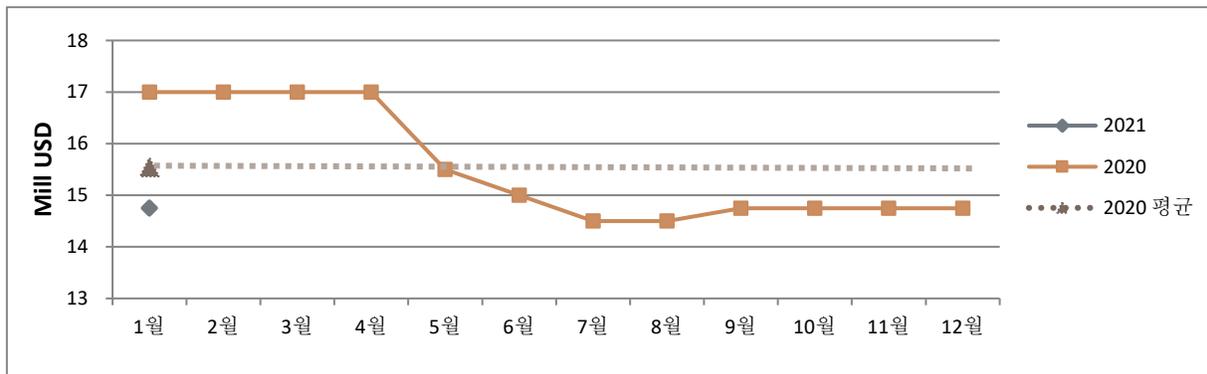
□ Kamsar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OCEAN COMPASS	180,200	2006	JAPAN	B&W		17.5	Greek buyer
BC	TIGER JIANGSU	180,096	2010	CHINA	B&W		15.35	Chinese buyer, auction
BC	PING MAY	178,043	2010	CHINA	B&W		17.2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LIN JIE	177,359	2003	JAPAN	MITSU		8.8	Undisclosed buyer
BC	CAPE PROVIDENCE	169,234	2010	KOREA	B&W		18.1	Undisclosed buyer, auction, BWTS fitted
BC	JABAL NAFUSA	169,097	2011	KOREA	B&W		15.65	Greek buyer (Minerva)
BC	PIET	93,200	2011	CHINA	B&W		10.4	Undisclosed buyer
BC	HARM	93,183	2011	CHINA	B&W		-2EB	
BC	HORIZON RUBY	76,001	2013	CHINA	B&W		16.6	HK buyer (Seacon Shipping)
BC	DIONE	75,172	2001	KOREA	B&W		5.4-5.6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ANGELIC GLORY	75,006	2002	CHINA	B&W		4.8	Chinese buyer, auction
BC	AURILIA	74,414	2007	CHINA	B&W		7.9	Chinese buyer
BC	SBI LIBRA	63,679	2017	CHINA	B&W	C 4x30t	18.65	Greek buyer, BWTS fitted
BC	AMSTEL SEAGULL	61,268	2015	JAPAN	B&W	C 4x30.7t	--	UK buyer (Hadley Shipping), Old sale, BWTS fitted
BC	IRON LADY V	57,295	2011	CHINA	B&W	C 4x30t	8.2	Chinese buyer
BC	ASIA ZIRCON I	53,414	2011	VIETNAM	B&W	C 4x36t	12.9-13.1	Chinese buyer
BC	ASAI ZIRCON II	53,000	2008	VIETNAM	B&W	C 4x36t	-2EB	
BC	LA LOIRAIS	39,300	2018	CHINA	B&W	C 4x30t	16.2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MARINA R	37,785	2010	CHINA	WART	C 4x30t	7.25	Chinese buyer, BWTS fitted
BC	RODINA	37,500	2009	CHINA	SULZER	C 4x30t	7.9-8.1	European buyer, BWTS fitted



II . BULK CARRIER

BC	FURNESS PORTLAND	37,045	2014	JAPAN	B&W	C 4x30.5t	13.25 -13.4	Greek buyer (Silo Management), BWTS fitted
BC	CAPE NELSON	28,438	2001	JAPAN	MITSU	C 4x30.5t	3.5	Hong Kong buyer, BWTS fitted
BC	ALBANY SOUND	28,379	2002	JAPAN	B&W	C 4x30.5t	4.5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ATLANTIC RAINBOW	28,368	2014	JAPAN	B&W	C 4x30.5t	8	Dutch buyer (Stellar Navigation), Old sale, BWTS fit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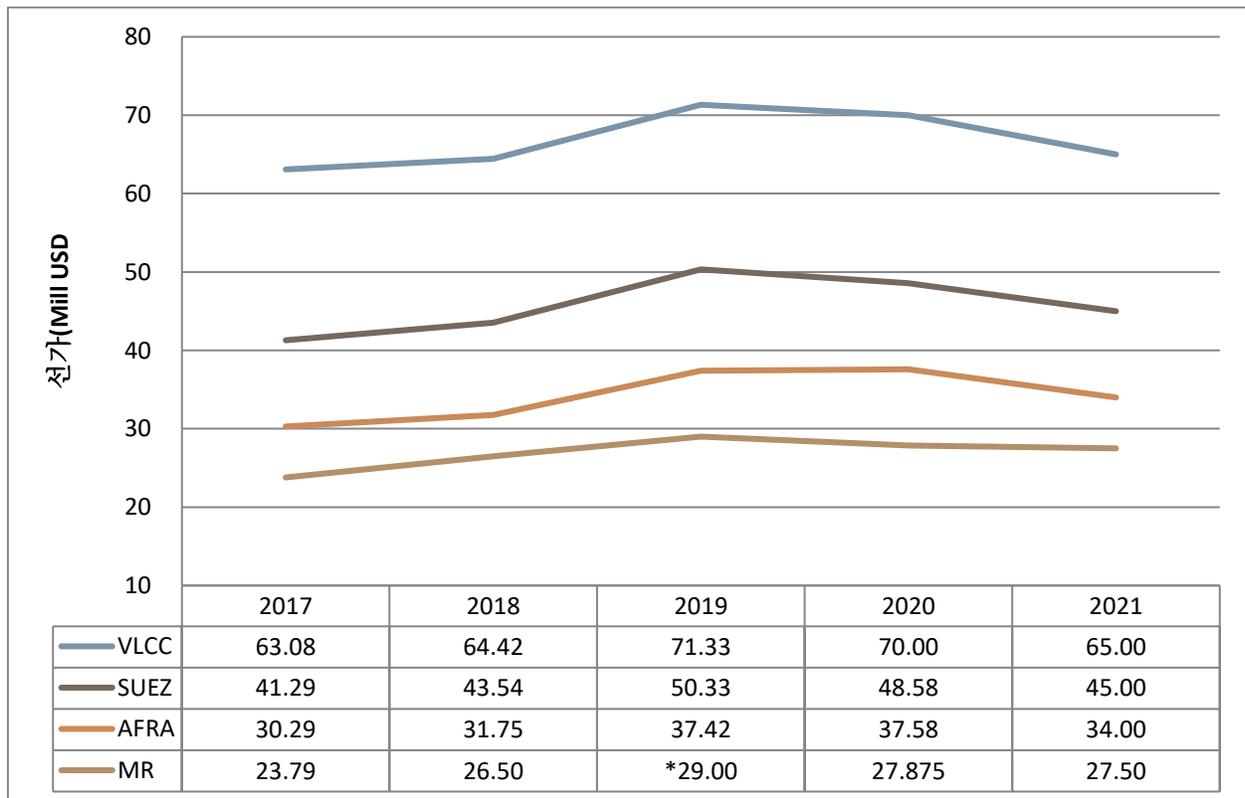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VLCC 310K	63.08	64.42	71.33	70.00	65.00
	-6.89%	2.11%	10.73%	-1.87%	-7.14%
Suezmax 160K	41.29	43.54	50.33	48.58	45.00
	-15.15%	5.45%	15.60%	-3.48%	-7.38%
Aframax 105K	30.29	31.75	37.42	37.58	34.00
	-15.66%	4.81%	17.85%	0.45%	-9.53%
MR 51K <small>*18년까지는 49K 기준</small>	23.79	26.50	*29.00	27.875	27.50
	-4.19%	11.38%	9.43%	-3.88%	-1.35%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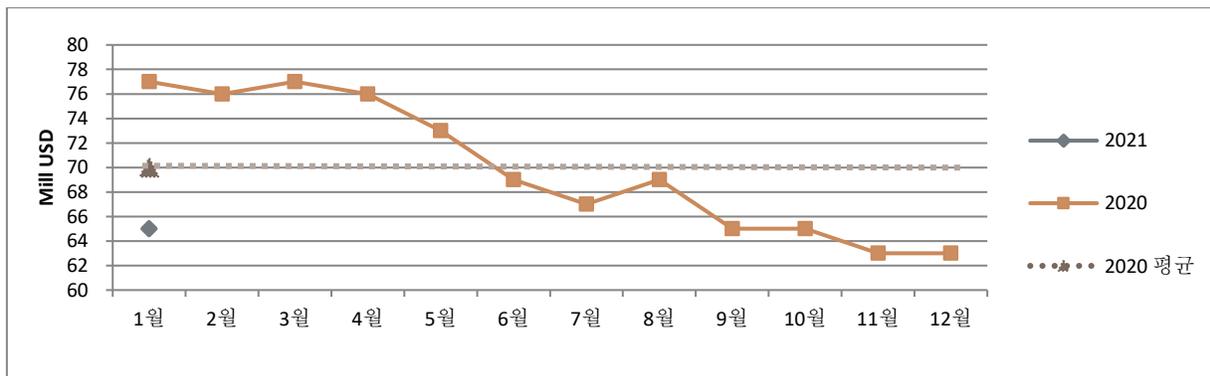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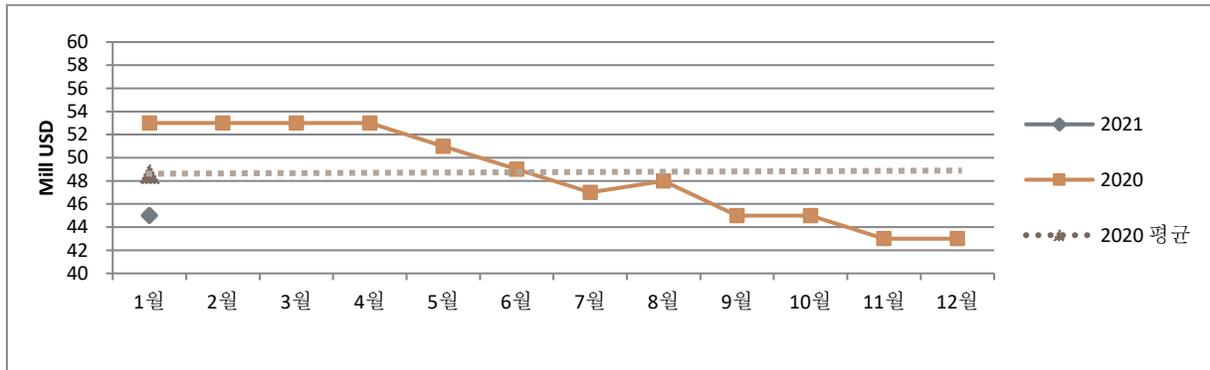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21	VLCC 310K	선가	65.00						65.00
		전월대비	3.2%						-
		전년대비	-15.6%						-7.1%
	SUEZ 160K	선가	45.00						45.00
		전월대비	4.7%						-
		전년대비	-15.1%						-7.4%
	AFRA 105K	선가	34.00						34.00
		전월대비	4.6%						-
		전년대비	-17.1%						-9.5%
	MR 51K	선가	27.50						27.50
		전월대비	5.8%						-
		전년대비	-8.3%						-1.3%
2020	VLCC	77.00	76.00	77.00	76.00	73.00	69.00	70.00	
	SUEZ	53.00	53.00	53.00	53.00	51.00	49.00	48.58	
	AFRA	41.00	42.50	42.50	42.50	40.00	37.50	37.58	
	MR	30.00	31.00	31.00	30.00	28.00	27.50	27.88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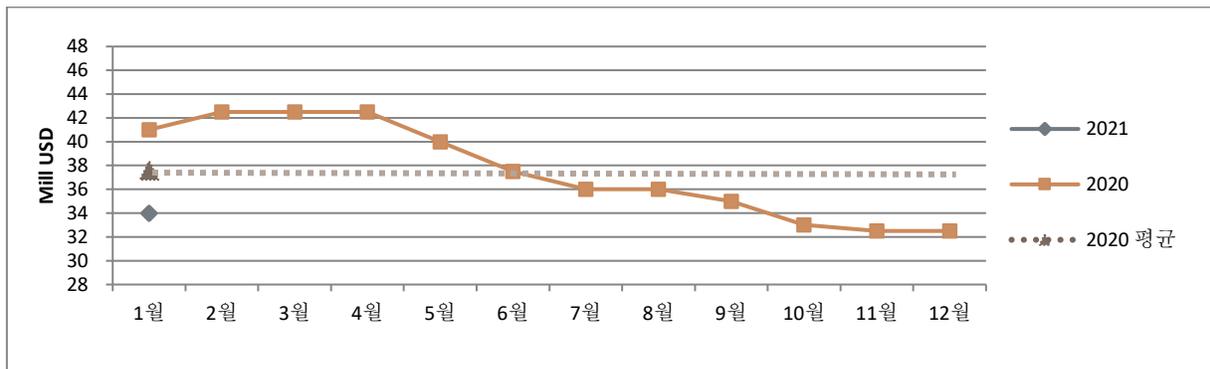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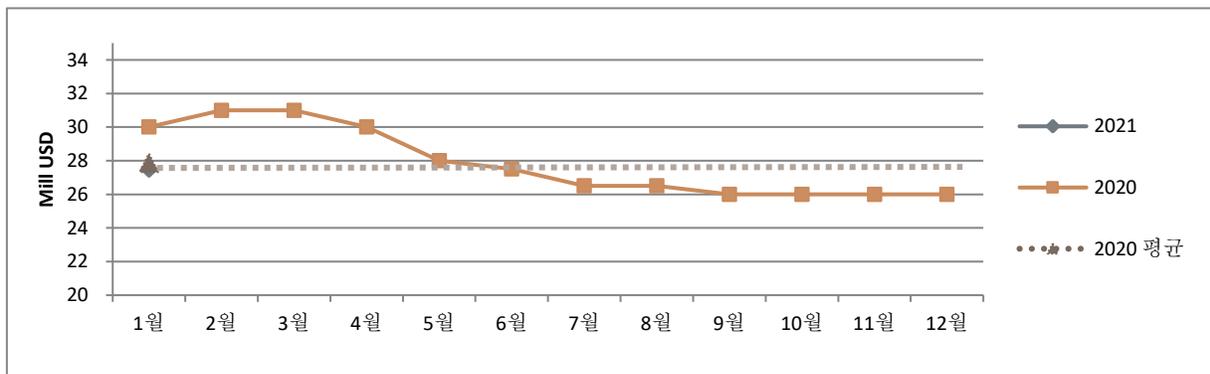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SINO MACRO	311,168	1999	KOREA	B&W		20.5	Chinese buyer
TANKER	HUDSON	297,638	2017	PHILIPPINES	B&W		71.5	Greek buyer (Delta Tankers), BWTS fitted
TANKER	ESTEEM BRILLIANCE	110,802	2006	JAPAN	B&W		13.1-13.3	European buyer
TANKER	MAERSK PELICAN	109,647	2008	CHINA	WART		--	Indonesia buyer (BULL)
TANKER	STAVANGER FALCON	105,400	2009	JAPAN	B&W		18	Undisclosed buyer
TANKER	STI LOMBARD	109,999	2015	KOREA	B&W			
TANKER	STI MEMPHIS	49,995	2014	KOREA	B&W		--	Chinese buyer (Avic International Leasing), BWTS fitted
TANKER	STI OSCEOLA	49,990	2015	KOREA	B&W		4EB	
TANKER	STI SOHO	49,990	2014	KOREA	B&W			
TANKER	FSL OSAKA	45,998	2007	JAPAN	MITSU		11.3-11.4	Indonesian buyer
TANKER	ARGENT BLOOM	33,609	2009	JAPAN	MITSU		19.2	Japanese buyer (EGD Chemical)
TANKER	CHEMROUTE SUN	25,615	2008	JAPAN	MITSU		15.1-15.2	UK buyer (Tufton Oceanic)
OIL/CHEM	ECO VAN NUYS	50,000	2021	KOREA	B&W			
OIL/CHEM	ECO VENICE BEACH	49,815	2021	KOREA	B&W		--	Eastmed buyer, BWTS fitted
OIL/CHEM	ECO SANTA MONICA	49,815	2021	KOREA	B&W		3EB	
OIL/CHEM	ANICHKOV BRIDGE	47,842	2003	KOREA	B&W	3	--	UAE buyer
OIL/CHEM	LIBERTY	33,609	2009	JAPAN	MITSU	2&3	19.2	Japanese buyer (EGD Chemical)
OIL/CHEM	BRO DISTRIBUTOR	14,907	2006	CHINA	MAN	2	--	Indonesia buyer (BULL), ICE 1C
OIL/CHEM	BRO DESIGNER	14,846	2006	CHINA	MAN	2	4EB	



III. TANKER

OIL/CHEM	BRO DEVELOPER	14,737	2007	CHINA	MAN	2		
OIL/CHEM	BRO DELIVERER	14,766	2006	CHINA	MAN	2		
OIL/CHEM	GLOBAL HAWK	9,010	2007	CHINA	YAN	2	3	Far Eastern buyer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HALIFAX EXPRESS	65,763	2000	KOREA	B&W	4843	TEU	--	Taiwanese buyer
CONT	TIM S	44,135	2005	KOREA	B&W	3398	TEU	10.1	Undisclosed buyer
CONT	SELENITE	37,335	2006	GERMANY	B&W	2742	TEU	11.2	Undisclosed buyer
CONT	ANGOL	35,538	2010	CHINA	B&W	2797	TEU	19.9-20.1	UK buyer
CONT	ANGELES	35,538	2010	CHINA	B&W	2797	TEU	-2EB	(Lomar Shi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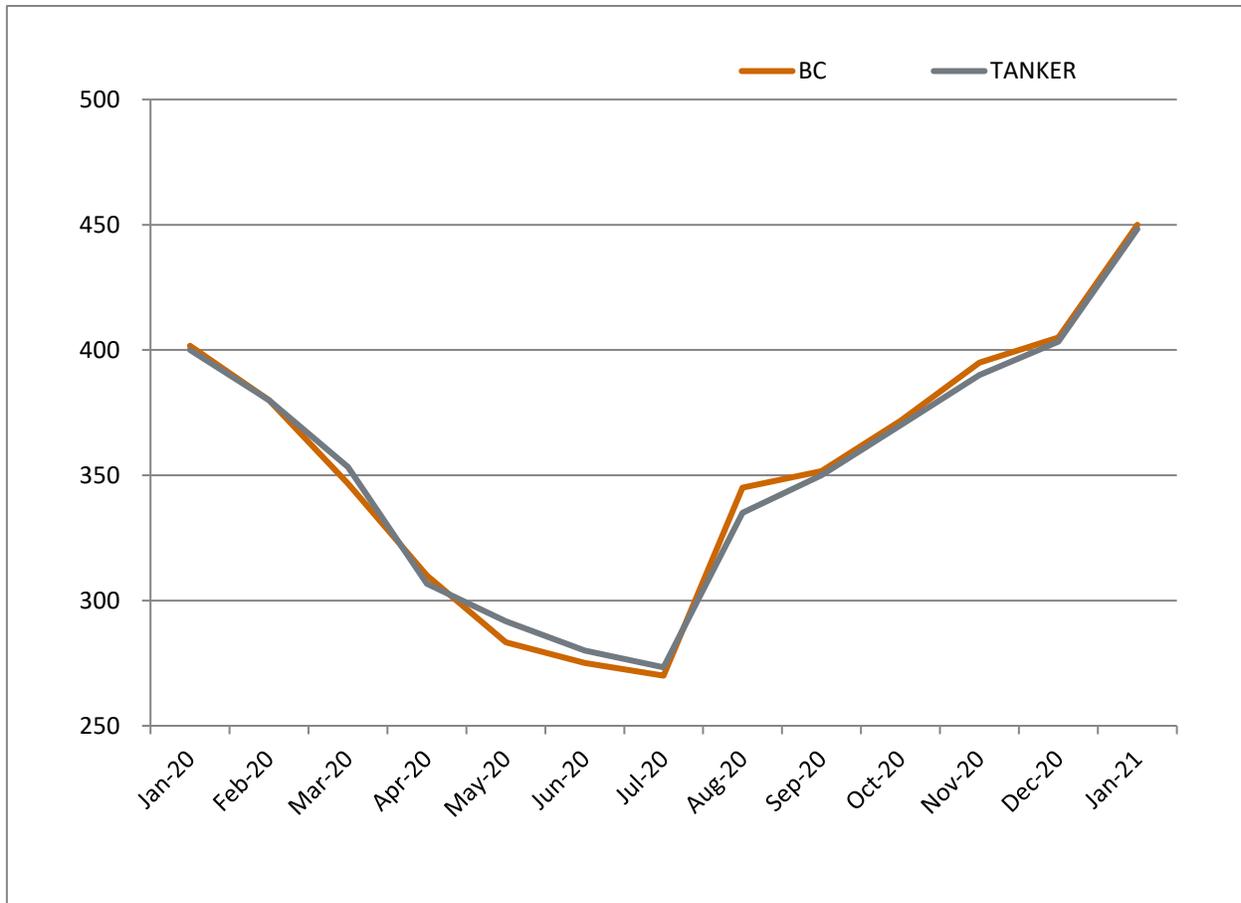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9 평균		2020 평균		2021 평균		2020 년 1 월	2021 년 1 월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TANKER	396.39	-8.4%	344.44	-13.1%	448.33	30.2%	400.00	448.33	11.2%	12.1%
BC	398.75	-9.5%	344.58	-13.6%	450.00	30.6%	401.67	450.00	11.1%	12.0%

❖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률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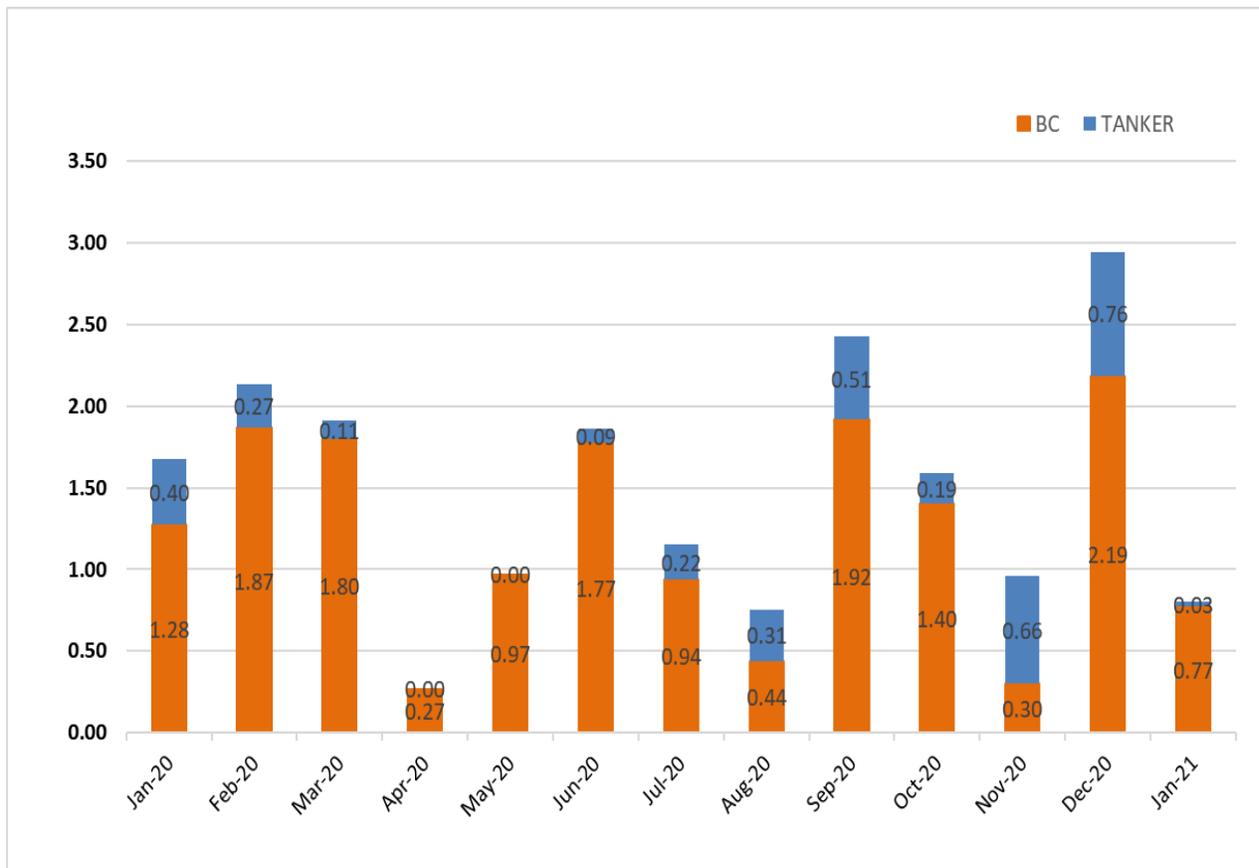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9 년		2020 년 누적				2020 년 1 월		2021 년 1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률 (전년대비)	No.	누적률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률 (전년대비)	No.	증감률 (전년대비)
TANKER	3.54	97	3.52	99.6%	108	111.3%	0.40	13	0.03	-92.5%	2	-84.6%
BC	7.45	116	15.13	203.3%	154	132.8%	1.28	12	0.77	-39.3%	7	-41.7%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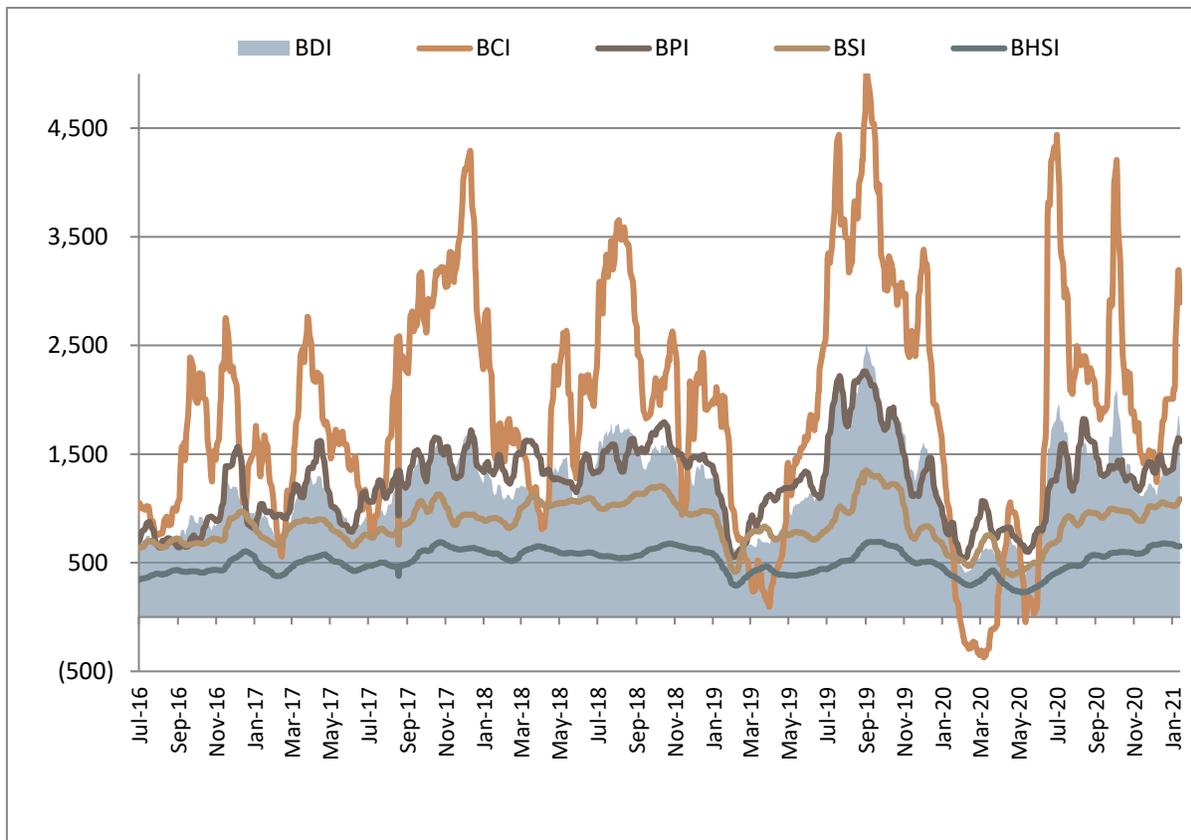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TANKER	MERLION M	308,571	43,308	1999	KOREA	SULZER	427	AS IS MALAYSIA
BC	STELLAR PIONEER	298,624	46,048	1994	KOREA	B&W	431	BANGLADESHI AS IS LABUAN
BC	STELLAR TOPAZ	298,468	45,865	1994	KOREA	B&W	431	BANGLADESHI AS IS LABUAN
BC	SINOTRADER	267,906	38,705	1993	JAPAN	B&W	440	BANGLADESHI
BC	AN LI	170,387	24,604	2000	JAPAN	B&W	415	BANGLADESHI, AS IS SINGAPORE
BC	CAROL HK	77,549	13,401	1991	KOREA	B&W	478	BANGLADESHI
BC	BERNI HK	77,548	13,450	1991	KOREA	B&W	478	BANGLADESHI
BC	WUYI HK	75,460	11,390	1995	DENMARK	B&W	478	BANGLADESHI
BC	ANDA RAYA	49,052	7,925	1996	JAPAN	B&W	445	BANGLADESHI
MPP	DALIAN	29,827	12,291	2004	CHINA	B&W	480-485	BANGLADESHI
CHEMICAL	KNIGHT	19,084	6,070	1987	JAPAN	SULZ	395	BANGLADESHI
CHEMICAL	COUNT	11,042	3,307	1997	KOREA	B&W	395	BANGLADESHI
MPP	LIZA	5,000	2,517	1988	RUSSIA	ETC	400	BANGLADESHI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1-01-15	2021-01-08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754	1,606	▲148.00	2518	290
BCI	2,893	2,548	▲345.00	5043	-372
BPI	1,616	1,559	▲57.00	2262	282
BSI	1,086	1,029	▲57.00	1351	243
BHSI	653	656	▼-3.00	692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452.00	▲17.00	415.00	▲12.00	421.00	▲15.50
MGO	482.00	▲16.00	471.00	▲22.00	486.00	▲9.00
LSMGO	465.50	▲13.50	458.00	▲14.00	-	-
VLSFO	351.50	▲13.00	332.00	▲5.00	325.50	▲8.50

❖기준일 : 1 월 15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1-01-15	2021-01-08	CHANGE
미국 달러	1100.30	1087.70	▲12.60
일본 엔(100)	1059.97	1047.68	▲12.29
유로	1337.41	1334.66	▲2.75
중국 위안	170.20	168.90	▲1.30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시사상식] 그린본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채권으로 주요 대상에는 재생에너지(풍력발전 등), 에너지 효율화 등이 있다.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등 주로 국제기구에서 발행하다가 민간에서도 발행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그린본드 발행규모는 2012년보다 5배 이상 증가한 29건(11억 달러)에 달하였다.

한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JP모간체이스, 크레디아그리콜 등의 주요 은행들이 발표한 그린본드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폐기물의 관리 및 토지의 이용, 생물의 다양성 보전, 에너지 효율, 정수, 청정운송 등을 친환경 프로젝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관련기사] 남부발전, 창사 후 첫 외화 그린본드 발행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창사 후 처음으로 외화 그린본드 발행에 나선다. 그린본드는 발행 목적이 친환경 관련 투자로 제한된 채권이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이달 말 해외 시장에서 달러화 그린본드를 발행하기로 했다. 발행금액은 4억~5억달러(약 4400억~55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는 조만간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요예측(사전 청약)을 할 예정이다. 미즈호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크레디아그리콜, UBS가 채권 발행 주관을 맡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번 그린본드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2018년에도 같은 목적으로 국내에서 30년 만기로 1000억원어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국내 기업이 지금까지 발행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채권 중 가장 만기가 길다.

국내 기업들이 연초부터 흥행 속에 외화 채권을 발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남부발전 역시 무난히 그린본드 투자수요를 확보할 전망이다. 산업은행(3.1대 1)과 SK하이닉스(4.9대 1)가 이달 들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각각 15억달러, 25억달러 규모 글로벌본드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VI. STL NEWS & INFORMATION

글로벌본드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돼 유통되는 채권이다. 세계 주요 국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금융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자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더욱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투자 위험이 낮은 공기업이란 점도 해외 기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은 점을 반영해 남부발전의 신용등급을 10개 투자적격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AA'로 매기고 있다. 한국 정부와 똑같은 등급이다.

[출처 : 한경닷컴-김진성 기자]



VI. STL NEWS &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biz@stlkorea.com
sancho@stlkorea.com(Personal)

Mike Hong (홍창목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010-4855-8055
biz@stlkorea.com
mikehong@stlkorea.com(Personal)

H.S. Lee (이현성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Mob.010-4525-5079
biz@stlkorea.com
hslee@stlkorea.com(Personal)

| RESEARCH

Anna Lee (이혜란 과장)
Manager
Tel. 070-7771-6403
Mob. 010-2258-5561
snp@stlkorea.com
anna@stlkorea.com(Personal)

Joovi Park (박주비 대리)
Assistant Manager
Tel. 070-7771-6419
Mob. 010-7794-6182
snp@stlkorea.com
joovi@stlkorea.com(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기업/일반 단체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070-4800-0151)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010-2777-4027)